

광주 남구청, 예산 전문가 장병완 의원 초청 간담회

“재정난 타개책 혼수 좀 해 주오”

장의원 “국비 지원 높은 사업 우선 추진...정부 추진사업 등 적극 활용을”

재정난에 허덕이는 광주시 남구가 최근 보궐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을 초청,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혼수’를 요청했다.

최영호 남구청장과 구청 간부들은 이날 오후 남구청 상황실에서 장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남구가 지역구인 광주시 의원, 남구의원들도 함께 참여해 재정난을 헤쳐나가기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청장은 “남구는 현재 법·의무적 경비 223억원, 국·시비 보조사업 미부담 49억원 등 총 273억원 상당의 재원이 부족하다”며 “예산절감, 사업규모 축소 등 자구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최소 124억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현안사업인 ▲주거환경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어린이 전용 도서관 ▲청사 건립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최 청장은 “보전소 이전과 적석산~분석산 간 산림연결 복원 사업, 자전거 도로 개설, 대천(대

지)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만큼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가급적 규모가 큰 사업을 국비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는 사업은 구비 역시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쉽게 나아지기 어렵다”면서 “남구는 국고 지원비율이

높은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남구의 자체 동력만으로는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유니버시아드대회나 공공기관 이전 등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남구를 포함한 지자체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 분배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는 복지비 지출이 많은 자치구에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원배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전문가인 장 의원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역구를 어떻게 지원할지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4일 오후 광주시 남구청에서 열린 ‘장병완 국회의원의 초청 구청 간담회’에서 최영호(왼쪽 맨 앞) 남구청장과 장병완(오른쪽 첫번째) 국회의원이 남구의 재정난 타개 방안과 현안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시의회 ‘폐회사 발언’ 갈등 봉합

강시장-윤의장 회동 “건강한 동반자 관계 만들 것”

‘의회 길들이기’ 논란 매듭... 초선들의 의정 활동 주목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이 임시회 폐회사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의 ‘일방통행식 정책발표’를 지적한 데 대해 광주시 간부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았던 양측의 갈등이 봉합됐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윤봉근 시의회의장은 4일 오후 광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집행부 간부와 시의회 의장단 등이 배석한 가운데 만찬 회동을 갖고 ‘폐회사 발언 갈등’에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건강한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강 시장은 이날 윤봉근 의장과 공동으로 낸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회의장의 폐회사 발언 중 ‘일방적 임기응변식’ 표현과 관련해 집행부 일부 간부진들의 과잉반응으로 시민 여러 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

의회를 더욱더 존중하고, 특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의회의 제안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장은 “시의회는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 건전한 협력을 통해 광주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시장과 윤 의장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시의회와 집행부가 더욱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의 양 수레바퀴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윤 의장의 폐회사 발언과 간부공무원들의 집단 대응으로 빚어진 시와 시의회 간의 대립은 보름 만에 해소됐다.

특히 이번 대립과정에서 초선의원들이 대부분인 6대 시의회가 집행부

의 ‘의회 길들이기’ 논란을 매듭짓고, 건전하고 긴장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6대 시의회가 집행부에 다소 종속됐던 5대 의회와 비교해 탈바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앞으로 시의원들의 역할과 의정 활동이 주목된다.

양측은 이날 보도자료 문구를 놓고 수차례 줄다리기를 벌이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빚었다.

시의회 측에는 강 시장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등의 4가지 요구사항을 보도자료에 적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의회 측이 요구한 직접적인 표현을 꺼리면서 공동명의 보도자료 완성이 늦어졌다.

한편, 이번 갈등은 윤 의장이 지난 달 20일 열린 임시회 폐회사에서 “광주시의 굵직한 현안 사업 중 몇몇은 충분한 사전검토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발표돼 아쉬운 감이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광주시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반박 보도자료를 내면서 빚어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나라 “재충전하자” 민주는 “전대 앞으로”

여야 유력 정치인 ‘여름휴가’ 계획 완전히 달라

대표 사퇴한 정세균 ‘탈여의도’ 정국 구상 몰두

정치권 휴지기인 8월을 맞아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여름 휴가가 크게 대비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당대회와 7·28 재보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을 모두 소화한 한나라당 유력 인사들은 상대적으로 휴가분한 마음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는 반면, 민주당 인사들은 전당대회를 코앞에 둔 상태에서 휴가마저 반납한 채 당권 도전을 위한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오는 7~14일 여름휴가를 떠난다. 평소 애용하는 대구 팔공산의 한 암자에서 당의 화합과 쇄신, 후반기 정국운영 방안 등을 구상할 계획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현재 자택에서 머물며 쉬고 있다. 트위터를

통해 “선풍기와 수박을 벗삼아 집에서 피서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그는 최근 수박을 먹고 있는 사진을 직접 올리기도 했다.

정몽준 전 대표는 지역구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에 따라 한달간 의정보고회를 갖는 동시에 2022년 월드컵 유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당 지도부 총 사퇴로 비상대책 위 체제를 가동시킨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은 8월에도 쉴 틈 없는 나날을 보낼 전망이다. 비대위 대표를 맡은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준비 책임 등을 맡은 만큼 휴가계획을 세울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당권 주자들은 더욱 바쁜 시간을 보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

(脫) 여의도’를 한 채 춘천에 머물고 있는 손학규 전 대표는 조만간 여의도로 복귀, 지난 2년간 기다들은 정국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휴가 없이 전국을 돌면서 조직 정비를 하면서 전대를 앞두고 제시할 ‘담대한 진보론’을 기다들을 예정이다. 전대 출사표를 던진 박주선, 천정배 의원도 휴가를 반납한 채 전국을 돌며 대의원을 접촉하는 등 전대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대표직을 사퇴한 정세균 전 대표는 이날부터 2~3일 정도 충남 만리포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금주말 정도까지 여의도를 벗어나 정국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번 주말까지 자택에 머물면서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선 패배로 어려움에 처한 당의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의원 선임 마찰·지도부 내 갈등

한나라 시·도당위원장 선거 보류

오는 6일로 예정됐던 한나라당 전남도당 선거가 잠정보류됐다. 또 광주시당위원장 선거도 대의원 선임을 둘러싼 마찰로 중앙당으로부터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4일 한나라당 광주시당·전남도당에 따르면 오는 6일 선임 도당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하고 지난 2일 후보 등록까지 마쳤으나 중앙당의 긴급지시로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전남도당대회’가 잠정 보류됐다.

한나라당 중앙당은 “8·15 이후 개각과 당조직 인선이 마무리된 뒤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당대회 일정을 결정한다”며 잠정 보류 조치했

다. 도당 위원장 후보로는 김문일 담양·곡성·구례당협위원장과 정훈 국민통합행동본부 총재 등 2명이다.

한나라당 광주시당도 지난달 말 시당위원장의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후임 위원장 선출 절차를 밟았으나 대의원 선정 과정이 문제가 되면서 중앙당으로부터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광주시당은 전임 위원장 임기 만료에 따른 당연직 및 선임직 대의원 선출을 둘러싸고 잡음이 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만의 “4대강 반대 정치인, 애항심에 의문”

환경단체 “오만방자...장관직 포기하라” 반발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4일 영산강 살리기사업 현장인 광주 남구 승촌보 공사현장을 찾아 “강을 살리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정치인들 얘기를 들으면, 애항심이 있는지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도 (강에) 관심이 있다면, 강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강운태 광주시장에 대해선 “정치적인 행동으로 발안한 것은 이해하지만 강 살리기를 통해 지역경제와 문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투



함께 강 살리기의 의미와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산강지킴이 광주·전남시 민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4대강 사업 반대 정치인을 비롯한 국민을 애항심이 없는 이들로 치부한 발언은 국민을 폄하한 오만방자한 행동”이라며 “환경부 장관직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양수현기자 yang@

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산강의 미래가 어두우면, 호남의 미래도 어둡다”며 “지역민과 함께 강 살리기의 의미와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산강지킴이 광주·전남시 민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4대강 사업 반대 정치인을 비롯한 국민을 애항심이 없는 이들로 치부한 발언은 국민을 폄하한 오만방자한 행동”이라며 “환경부 장관직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양수현기자 yang@

Advertisement for 'My Secret' (마이비밀) perfume. The ad features a woman's face and the text '제발 멈추기만 해도 땀귀췌' (Please just stop, my sweat is so bad) and '마이비밀' (My Secret). It also includes a list of products and prices.